

제167호

발행일 : 서기 2025년 5월 28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ngu@naver.com

화합 속 번영 다짐... 제58차 대종회 정기총회 성료



안동김씨대종회는 지난 2025년 3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문중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석한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임원 및 종친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오전 11시 10분, 태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성원 보고와 대종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연단 중앙에 제58차 정기총회 현수막과 함께 충렬공의 영정을 배치하여 숭조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조상님 영령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으며, 각 파종회별로 참석한 임원 및 종친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석한 대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안동김씨 도평의공파 의성 입향조(휘 자첨) 묘소부터 송은 할아버지 묘소를 비롯한 선영의 일가친척 묘소 100기 이상이 소실된 것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했다. 다행히 보물인 만취당을 비롯해 사촌마을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숭조돈목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약속했던 문중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면서, 대종회는 디지털 정보 공유 시스템 확대, 문중 뿌리 교육용 만화 제작, 국립중앙도서관 '안동김씨 문고' 개설 등 문중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숙원사업인 물계서원 복원 사업은 부지 마련 및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고 문중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 교육 및 문중 탐방 행사, 재능 있는 젊은 종원 발굴 및 표창, 종친 문화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김씨대종회

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중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석한 대종회장은 “종친회가 일가 씨족 공동체로서 안동김씨 문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중의 위상을 높여 선조님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참석한 모든 종친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며 충렬공 할아버지처럼 후손들은 누구나 89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90세가 넘었음에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수(都), 재호(文), 영만(按) 종친들에게는 109세까지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덕담을 나누고 박수를 보냈다.

충무공김시민기념사업회 법혜(보명 태완)스님은 축사를 통해 대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계서원 복원, 안동 송현동 안동회관 매입, 능동 충렬공 묘역 정비 등 석한 대종회장의 문중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종친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김시민 장군 생가터 복원과 이지스 구축함 김시민호의 진수를 염원하며 안동김씨 종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태영 사무총장의 업무보고와 태선(按), 헌덕(典)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태선 감사는 감사보고 말미에서 지난해 휘경동 대종회관 임대수입이 전년 대비 44% 인상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종회장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설명하고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서 안건 상정, 2024년 결산서와 2025년 예산안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종회에서 준비한 장흥 무산김과 안동김씨 순례기 2편, 부산·울산·경남 종친회에서 제공한 기념 수건을 참여자 모두에게 선물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안동김씨 종친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조상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년도, 대종회비 납부협조 요청

대종회 운영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으로 찬조금을 협찬하여 주시는 종친여러분, 그리고 대종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친여러분의 성금과 회비는 대종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대종회 회비를 깜박 잊으시고 아직 납부하지 못한 임원 종친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예금주 : 안동김씨대종회



安東金氏大宗會事務處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02)2244-3717 fax 02) 2243-1073

■ 제58회 정기총회 찬조금 (2025. 3.26) 백범기념관

1백만원	【翼】 석한 - 대중회장, 【按】태성 - 문영공회장	2,000,000
1백5십만원	【釜蔚慶】 부산·울산·경남 종친회	1,500,000
5십만원	【文英】 문영공종회, 【書】파종회	1,000,000
3십만원	【判書】 판서공종회, 【郡】 준회 - 파종회장, 【按】 태운 - 수도권회장	900,000
2십만원 19명	【開】 이경-파종회장, 【郡】 성묵 - 인천종친회장 · 평택종중, 【文】 영환-판서공회장, 【都】 원중-파종회장 · 회수-대중회고문, 【大】 태권-파종회장, 【提】 파종회 · 윤철-수도권회장, 【按】 파종회 · 형남-파종회장 · 재명-진천 · 태기-오창, 【翼】 파종회 · 영수-전임회장 · 용관-신임회장 · 효소공종회 · 목사공종회 · 용세-대중회고문(신평),	3,800,000
1십만원 29명	【開】 웅선-대중회이사, 【郡】 경회-평택 · 일수-광탄 · 중회-부산 【典】 봉회-서울, 【副】 원호-파종회장 · 규훈-포충사사무국장, 【文】 재호-대중회고문, 【都】 정-전수도권회장, 【大】 태식-대중회고문, 【提】 태현-전문영공회장 · 규원-파종회장 · 용식-전수도권회장 · 덕응-대중회부회장 · 성호-인천 【按】 영만-대중회고문 · 재필-대중회부회장 · 봉진-대중회이사 【翼】 정묵-대중회고문 · 용묵-대중회이사 · 윤묵-대중회이사 · 재영-대중회고문 · 영화-대중회부회장 · 강릉종친회 · 강식-대중회부회장 · 태철-문영공총무이사 · 태신-대중회이사 · 태연-익원공사사무국장 · 안산이목종친회	2,900,000
7만원	【翼】 권회-대중회이사	70,000
	소계	12,170,000

■ 제58회 정기총회 회비 (2025. 3.26) 백범기념관

5만원	【文】 수길-대구종친회장, 【翼】 재택-대중회부회장 · 재응-논산	150,000
3만원 171명	【開】 이경외 3명 · 웅선 · 용완 · 태묵,(7명) 【郡】 칠정문중 10명 · 승용 · 각회 · 완회 · 태동 · 향묵 · 태원 · 길회 · 형묵 · 재수 · 재강 · 재옥 · 재용 · 재회 · 재원 · 덕회 · 천수 · 승남 · 수웅 · 일수 · 대용 · 수학 · 윤상 · 규용 · 재선 · 재국 · 민회 · 석회 · 장묵 · 태용 (39명) 【典】 봉회 · 대교 · 종궁 · 상교 · 용교 · 택교 · 은정 · 화자 · 경회 · 재용 · 광회 · 규회 · 권회 · 선묵 · 재석 · 헌덕 · 재욱 · 재윤 · 재윤 · 재정 · 재룡 · 선회 (22명) 【副】 원호 · 민호 · 창호 · 정묵 · 태형 (5명) 【文】 건 · 태식 · 영웅 · 신묵 · 재호 · 수길 · 수길 · 덕만 · 윤만 · 광묵 · 영환 (11명) 【大】 재남 · 재구 · 황기 · 대형 · 태중 · 태영 (6명) 【都】 정 · 희중 · 희락 · 희묵 · 찬회 · 영회 · 난수 · 진중 · 정수 · 민회 (10명) 【提】 태현 · 윤철 · 성호 · 용식 · 덕응 · 하용 · 태영 · 태경 · 법혜 · 탁응 · 평응 · 석응(12명) 【按】 영만 · 태성 · 재필 · 완식 · 상연 · 주회 · 용국 · 태선 · 윤회 · 영범 · 태기 · 태운 (12명) 【書】 승용 · 규상 · 규태 · 정수 · 관영 (5명) 【翼】 영수 · 정묵 · 윤묵 · 강식 · 태철 · 태연 · 태신 · 재영 · 재권 · 재정 · 경회 · 태용 · 춘식 · 상회 · 성춘 · 정회 · 현중 · 재봉 · 태준 · 영회 · 형식 · 용관 · 창묵 · 권회 · 재규 · 태경 · 영식 · 홍식 · 재훈 · 일회 · 진아 · 의준 · 장회 · 태선 · 용호 · 인회 · 덕교 · 덕회 · 득회 · 찬회 · 성회 (41명) 【無】 무명	5,130,000
	소계	5,280,000
	합계	17,450,000

2025년도 대중회 이사회 성료



안동김씨대중회는 3월 11일(화) 오전 11시부터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석한 대중회장을 비롯한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이사회를 개최했다.

석한 대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종친들이 타 성씨에 비해 단합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입학 전국 3위를 차지한 보인고의 사례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태영 사무총장은 대중회 전반적인 업무와 물계서원 추진 경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성금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감사보고 순서에서 태선 감사와 헌덕 감사는 안동 송현동 회관 임대료 미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이어서 2024년도 결산서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어서 판서공종회 영환 회장은 익원공(휘 사형)께서 제작한 혼 일강리역대국도지도(강리도)의 우수성과 후손으로서 강리도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참석 임원들은 대중회에서 준비한 신세계푸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진 후 이사회를 마무리했다.

만화로 보는 가문의 역사... '안동김씨 순례기' 2권 발간



안동김씨대중회는 3월 26일, 만화로 구성된 《안동김씨 순례기 제2권: 고려의 위인들》을 5,000권 제작하여 각 파종회에 배포했다.

‘제1권 뿌리를 찾아서’는 경순왕부터 충렬공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시조(始祖)와 중시조(中始祖), 선안동과 후안동의 구별, 파계보와 항렬자, 유적 등을 흥미롭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2권 고려의 위인들’은 고려의 왕과 충렬공의 자제들, 각 파조 할아버지들의 역사적 사실과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만화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만화책으로 가문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적 작업으로,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중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상의 얼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1권과 제2권은 안동김씨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중회에서는 독자들의 독후감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발간될 《안동김씨 순례기 제3권》에서는 각 파조 할아버지 이하 ‘조선의 위인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2026년 정기총회에 배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안동김씨대중회의 이번 발간 사업이 많은 이들에게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숭의전 춘계대제, 태성 문영공회장 분헌관 맡아 충렬공 기려...



고려 왕조의 정신과 역사를 기리는 숭의전 춘계대제가 2025년 4월 6일(일) 오전 11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의 숭의전에서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제례는 고려 태조 왕건을 비롯한 역대 고려 국왕들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숭의전을 가득 채웠다.

이번 춘계대제에서는 태성 문영공종회 회장이 분헌관의 중책을 맡아 충렬공(휘 방경) 할아버지께 정중하고 경건하게 봉향의 예를 올렸다. 분헌관은 제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선조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

초헌관으로는 김덕현 연천군수가 참석하여 숭의전 대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사회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쾌청하고 따뜻한 봄 날씨 속에 숭의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를 띠었다. 태종 부부, 건희 종인, 범식 부부, 용국, 용주 등 여러 종친들은 선조를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한편 부사공과 철원종친회는 충무공김응하 장군역사연구회 김규훈 회장, 김태룡 사무국장, 철원문화원철원학원 임병순 연구소장, 철원 포충사 김태형 고문 등 철원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철원 지역 향교와 포충사의 제례 의식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홍식(典)

대종회고문(숭의전보존회 임원)도 참석하여 후손들에게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례는 시종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고려 시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충렬공(휘 방경) 할아버지의 빛나는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충렬공의 충심은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按)용국 사무국장, (副)태형 대중회 이사」



강진 판서공(휘 선) 이하 4위 세일사 봉행, 조상 송모와 종친간 화합 다져...

강진 작천면 금릉산은 충렬공(諱 方慶)의 현손인 군사공(諱 七陽)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開創)하자 벼슬을 버리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며 은거한 곳이다. 그 후 선고(先考) 상락군(諱 厚)과 개성에 모셨던 조부 충숙공(諱 承用)의 묘가 천장(遷葬)되고, 1967년 증조 판서공(諱 愼)의 설단이 조성되어 비로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2025년 4월 13일(일) 판서공(諱 愼), 충숙공(諱 承用), 상락군(諱 厚), 군사공(諱 七陽) 4위(四位)의 세향이 판서공종회(회장 영환) 주관으로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번 시제에는 문영공종회 태헌(泰憲) 명예회장, 태성(泰聖) 회장, 태철(泰喆), 태신(泰信) 익원공 부회장, 서운관정공과 상호(詳浩) 고문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종친들이 참제하였다. 이날은 때아닌 북풍과 돌풍 등 전국적인 이상기후가 나타났으나 조상님의 보살핌 덕분에 시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세향에 앞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임의 중중 결산 및 인수인계건, 2025년 예산 편성 및 집행 건이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총회 후 참석자들은 묘역으로 이동하여 시제를 봉행했다.

판서공 세향의 초헌관은 준회(俊會) 군사공파 회장이, 아헌관은 태성(泰聖) 문영공종회장이, 종헌관은 상호(詳浩) 대중회 고문이 맡았다. 충숙공 이하 3위의 합제에서는 초헌관으로 주회(周會) 칠정문중 회장이, 아헌관으로 태식(泰植) 대중회 고문이, 종헌관으로 헌덕(憲德) 대중회 감사가 각각 봉행했다.

집례는 윤만(潤萬), 찬인은 재구(在九), 대축은 태영(泰榮), 진설은 재이(在二), 집사는 영기(榮淇), 천수(千洙), 덕회(德會), 순교(淳敎), 대경(大敬) 등이 맡아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세향은 조상을 기리고 종친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채홍철 묘소 참배, 800년 만의 만남



한편, 강진 세향 하루 전인 4월 12일 강진 판서공 세향 참예단은 충렬공의 사위인 평강인 채홍철의 묘소를 참배했다. 채홍철의 배위는 충렬공의 막내 따님으로 800여 년 만에 친정 후손들이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채홍철(蔡洪哲, 1262~1340)은 고려시대 문신으로, 문장과 기예가 뛰어났으며 불교에 조예가 깊었다. 18세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23세에 진사시에 급제한 그는 1308년 충선왕의 복위 개혁에 참여하여 재상에 이르렀으며 특히 충숙왕의 토지 조사 사업을 주도하여 큰 치적을 남겼고 순천군(順天君)에 봉해졌다.

부인 김씨는 영가군부인(永嘉郡夫人)으로, 부인은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정숙하고 착하여 규문(閨門)의 법도를 잘 지켰다.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는데 맏아들 하중(河中)은 원나라에서 벼슬을 했고, 둘째 아들 하노(河老)는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를, 셋째 아들 선지(先智)는 불교를 배워 스님이 되었다. 맏딸은 계림부윤 설현고(薛玄固)에게, 둘째 딸은 정광조(鄭光祖)에게 시집갔다.

맏사위 설현고(薛玄固)는 설인검(薛仁儉)의 손자로, 판서공(諱 愼)은 설현고의 고모부이다. 묘비에는 배위가 순천군부인(順天郡夫人) 안동김씨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달라 조만간 영가군부인(永嘉郡夫人)으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선암매를 만나러간 순천 선암사



채홍철 묘소를 참배한 후, 순천의 맛집 '해연'에서 생선조림으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선암매를 보기 위해 순천 선암사에 찾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암매는 짧은 봄과 작별하며 이미 푸른잎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 대지를 적시는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묵(臣默) 학술이사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일행은 선암사 강선루가 보이는 승선교(昇仙橋, 보물 제400호)를 지나 원통전과 각황전을 따라 운수암으로 향했다. 돌담길 양옆으로 붉은 매화가 핀다는 수백 년 된 선암매 고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600여 년 전 천불전 앞 와송과 함께 심어진 것으로 알려진 선암매는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8호로 지정된 귀한 존재다.

선암사 경내에서는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선생의 흔적이 느껴지는 '무량수각' 현판이 눈길을 끌었다. 추사 선생이 제주 유배 시절 해남 대흥사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걸려 있던 원교 이광사(李匡師)의 현판을 내리고 자신의 현판을 걸었다는 일화는 선암사에 걸린 '무량수각' 편액에 묘한 의미를 더한다.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선암사 경내를 거닐며 '선암사중수비'와 웅장한 '각황전(覺皇殿)'을 둘러보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록 만개한 선암매의 화려함은 볼 수 없었지만, 선암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역사적인 건축물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한편, 숙소가 있는 강진 마량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른 버스가 목적지와는 먼 서천의 마량을 향해 김제까지 약 1시간가량 북상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뜻밖의 여정이었지만, 이는 여행의 또 다른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을 듯하다.

500년 호국정신의 성지, 전라병영성 답사

세향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조선시대 500여 년간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육군 총지휘 본부였던 전라병영성을 답사하며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겼다. 비록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 인해 건물은 소실되었으나, 뚜렷하게 남아 있는 성곽을 통해 당시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안동 김문에는 김일(金逸 초명 述), 김공석(金公奭), 김적(金適), 김중원(金重元), 김성우(金聖遇) 다섯 분의 전라병마절도사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예비역 육군준장 이원승 장군의 상세

한 해설을 통해 병영성의 역사적 중요성과 병마절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판서공 시제와 더불어 진행된 채홍철 묘소 참배 및 전라병영성 답사는 안동 김문 종친들에게 깊은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종친 간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소중한 여정이었다.



「대중회 부총장 발용」

‘제25회 연기대첩제’ 성황리에 개최…선조들의 숭고한 정신 기려



고려 시대 몽골 합단적을 격파한 역사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제25회 연기대첩제’가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 세종시 연서면 고북 자연공원 잔디광장에서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연기대첩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국난 극복에 헌신하신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모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임창철 세종문화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연기대첩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기대첩은 세종시의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추도사와 기념사에 이어 진행된 헌화 및 분향 순서에는 참석자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헌화하며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연기대첩은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 금강 연안까지 침입한 원나라 반란군인 합단적을 김흔(金忻), 한희유(韓希愈), 인후(印侯) 장군 등이 연서면 정좌산과 원수산에서 격파한 전투로, 우리나라 7대 대첩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연기대첩의 주역인 김흔 장군은 충렬공(諱 方慶)의 둘째 아들로, 삼별초 토벌과 일본 원정에도 참여한 용맹한 장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김씨 문영공중회 태성 회장과 재영·태현 전 회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종친들과 100여 명의 세종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세종문화원에서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한편, 행사 후 ‘도첨의사사공(휘 혼) 초혼묘 건립위원회’ 위원 등 종친들은 전서공과 묘역이 있는 학당리로 이동하여 전서공 묘소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묘소 참배는 홍식 전서공과 전 회장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특히 문영공중회에서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문영공의 형님이신 도첨의사사공(都僉議司事公) 김흔 장군의 초혼묘 조성을 의결한 바 있어, 이번 연기대첩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처럼 연기대첩제는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행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영공중회에서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와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세종시에서 전통차 계승 사업을 하는 현회(翼, 안사연 회원)씨는 굿은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전통차와 다과를 정성껏 준비하여 참석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문영공중회와 현회 씨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 5. 25. 기준)

3천만원	【翼】· 석한-대종회장	30,000,000
2억원	【翼】· 수원 판결사공중중	200,000,000
1천만원(6명)	【文英】· 문영공중회【都】· 봉회-명예회장【文】· 파중회【按】· 형남-파중회장【翼】· 파중회·수원 참의공중중	60,000,000
7백5십만원	【書】· 파중회	7,500,000
6백만원	【按】· 태성-문영공회장	6,000,000
5백만원 (11명)	【郡】· 준회-파중회장·파중회·광탄중중·칠정문중【부울경】· 부산.울산.경남종친회 【文】· 영환-총렬공기념사업회장·참의공중중-완주【按】· 파중회【翼】· 목사공중중·부령공중회·효소공중중	55,000,000
3백만원 (6명)	【郡】· 평택자산공중중【文】· 경기광주문중【都】· 파중회【提】· 파중회(생원공) 【翼】· 효헌공중중·실경-대구종친회 고문	18,000,000
2백만원 (10명)	【郡】· 장안중중【文】· 포천별제공중중【安】· 파중회【按】· 소윤공(지주사공)중회【安東】· 안동종친회 【翼】· 재용 고문·재남 고문·문정공중회·정묵-전대구회장·거석(중회)	20,000,000
1백3십만원	【郡】· 재근-부안	1,300,000
1백1십만원	【文】· 재만-대구	1,100,000
1백만원 (45명)	【郡】· 성묵-인천·재이-강진·중회-부산·태영-사무총장·원회-김제·승남-광탄 【典】· 처사공중회·재윤-전파중회장【副】· 원호-파중회장 【文】· 윤만-파중회장·왕용-포천·용구-광진·영옥-광주·음성공중회·동철-이천【正】· 파중회·수선-파중회장 【大邱】· 대구종친회【都】· 항회-대구화랑·수도권중회【大】· 파중회-보성 【提】· 태한-문영공회장·수도권중회·규원-파중회장·일응-주에스토니아대사 【按】· 영만-진천·철회-안양·선희-전파중회장·태윤-대중회부회장 【翼】· 윤묵-효소공회장·영수-파중회장·태신-중구·재택-논산·재영·태철-수원·강릉중회 ·수돈(영흥사)·영화·화자·옥늬-대구·성화-부여·강식-하남·수원봉직량공중회·관식-인천·진식-영주	45,000,000
7십만원	【文】· 수길-대구종친회장	700,000
6십만원	【文】· 호길-대구종친회 고문	600,000
5십만원 (38명)	【開】· 이경-파중회장【郡】· 양천중중회【副】· 영식(춘식)-대구【文】· 동철-이천·재극·재관-음성 【都】· 정-수도권회장·원중-법무사【大】· 태권-파중회장【提】· 용식-의정부【按】· 서령공중회-증평·용주-남양주 【翼】· 주식-영주·진섭-대구·진수-동대문·태연-인천·수인-고창·형식-안산이목종친회 ·관찰사공중중-동두천·인화-강릉 【書】· 각영-파중회장·덕영-강동·규상-시흥·주일-안양·상호-강남·세영-일산·규삼·주현-廣州 ·무영-송파·규석-중랑·정수-안양·관영-양평·석영-성남·수영-용산·주형-서초 【正】· 태형(성립)-춘천【골프】· 안동골프회·인천종친회	19,000,000
3십만원 (30명)	【郡】· 희동·성대-정읍(형제)【典】· 헌덕-대중회 감사【副】· 규훈-철원 【文】· 영윤-廣州·재원-포항【都】· 회수-중랑·희윤-대구·창회-의성·원회-동서문화 【提】· 재삼·석응·태완-천안【按】· 사부-청주·태성-김포·용원-세종 【翼】· 동화-석한회장 子·광일-안동 동수 子·원회-논산 재택 子·근식-동대문·경식-이천·태용-용인 ·선희-당진·나주종친회·순화-영주·성우·재준·재석·재돈-대구·재환-보은·유묵-강릉	9,000,000
2십만원 (29명)	【開】· 복순-이경회장 동생【郡】· 발용-하남·정화-구리【大】· 성무-보성 【文】· 태경-구로 윤만 子·천만-廣州·증평도사공중중·주회·명회-포항 재원 子·신묵-남양주 【都】· 옥수-파중회장·시걸-부산·정수-동대문·태성·재선-사촌·영복-의성 【提】· 덕응-공주·태영-수원·정환-제주·석응-천안 【翼】· 하경-석한회장 女·호묵-대구 영화 子·재진-당진·준식-수원 태철 子·종빈-의정부 영수회장 子 ·재천-홍천·재교-안동회장·종묵-대구문경공회장·우회-논산 재택 子	5,800,000
1십5만원	【翼】· 진현-안동	150,000
1십만원 (60명)	【郡】· 대용-용인·만화-파주·필구(범직)-홍성·준용-인천·봉화-안양·재신-음성 【文】· 재성-음성·태식-도봉·동호-양주 윤식 父·윤식-양주·태길-안산 ·윤회·윤정·윤미-대구 재만 子女·재덕(순오)-음성·정호(한회)-전주 【都】· 재수·원회-의성【大】· 재남-나주·태종-광주·성무-보성【典】· 진화-대구【提】· 윤철-성북·대응-천안 【按】· 봉진-성남·용국-여주·용주-용인·용회-인천·태용-여주·범식-서울 【翼】· 태진·태경·진경-석한회장 孫·보화-수원 재영 子·선희-강화·경민-대구·루아-영화 부회장 손녀 ·철회(예천)·기범-동대문·홍교·시교-대구·선교-수원·동수·지원·태은-논산 재택 孫 ·상희·철우·재옥·재정·재춘·재진·재규-대구·기수·화성·만천-원주·용관·대현·세훈-고창·동화-서울 【正】· 수진-남양주·경랑-김포	6,000,000
5만원(5명)	【文】· 동묵-음성【提】· 재응-광진【翼】· 정화-대구·재성-무주·태현-덕적도	250,000
3만원(3명)	【按】· 태길-은평·영화-청주【翼】· 재남-대구	90,000
합계		485,490,000

성금 모금 계좌안내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성금 모금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중회 ※ 반드시 소속(파)과 이름을 적어서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문영공종회 제42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이임하시는 태헌 회장, 신임 태성 회장, 이임하시는 석웅 재무이사

2025년 3월 25일 오전 11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5층 더 파티움 안양에서 안동김씨 문영공종회 제42회 정기총회가 종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안동김씨대종회 석한 회장과 태영(郡) 사무총장, 발용(郡) 사무부총장을 비롯하여 판서공종회 영환(文) 회장, 신묵(文) 사무국장, 문온공파종회 윤만 회장, 전서공파종회 홍식 명예회장 등 많은 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문영공종회 태헌(提) 회장, 영만(按) 고문, 재영(翼) 명예회장, 법혜(提) 고문, 재명, 태준(按) 고문, 익원공파종회장을 역임하신 재남 고문, 서운관정공파 이사장을 역임하신 상호 고문, 안렴사공파종회 형남 회장, 익원공파종회 영수 회장 등 종회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다.

태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종회에서 추진하는 물계서원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문영공 발전위원회의 노력으로 대산차와의 화해조서가 잘 성립되어 종회의 재정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덧붙여 올해에는 문영공 할아버지 묘지석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 종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석한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충렬공 할아버지에서 이어지는 안동 김문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영공종회가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영공 발전위원회의 노력으로 종회 재정이 건전하게 확충될 것이라 확신하며, 종원들의 힘을 모아 물계서원 복원 등 대종회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판서공종회 영환 회장은 상서공 효인 할아버지에 이어 21세에 차석으로 과거에 급제한 문영공 할아버지의 뛰어난 필력에서 이어지는 안

동 김문의 문화 발전이 세계적인 흐름을 이끌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물계서원 복원과 혼일강리도를 잇는 문화 창달에 문영공종회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헌 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태철 총무이사가 종무 보고를, 석웅 재무이사가 재무 현황 보고를 했다. 사부(按) 감사는 종회 운영의 건전성에 대한 감사보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안이 석웅 재무 이사의 제안 설명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으며, 차기 회장 선임 안건에서는 태성(按) 회장이 추천되어 참석 종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의결되었다.

총무이사는 태철(翼) 현 이사가 연임하게 되었으며, 재무이사는 봉진(按), 감사는 석웅(提), 덕교(翼) 이사가 선임되었다. 기타 이사 및 임원들은 각 지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진 안건에서는 문영공 할아버지의 형님인 연기대첩의 영웅, 도침의사사 김흔 장군의 지단 건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 지역의 전서공파종회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초혼묘 형태의 지단을 건립하는 안건이 종원들의 박수로 원안 의결되었으며, 문영공종회에서 지단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영공 묘지석을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다.

태성 신임 회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태헌 회장과 석웅 재무이사에게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태헌 회장은 이임사에서 종친들의 관심 덕분에 문영공종회 회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대구 동화사에 문영공의 필적으로 쓰여진 홍진국준비 건립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종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태헌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위선 사업, 재산 관리, 종친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를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친교를 나누고, 종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태철」

군사공파종회 정기총회 성료



을 비롯한 3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했다.

장묵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국민의례와 선조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장묵 총무이사는 성원 보고를 통해 총회성립을 알렸으며, 준회 파종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 강진 세향 참제에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 종로3가 한일옥에서 군사공파종회(회장 준회) 2025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준회 회장을

대한 종친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덕회 감사와 태우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장묵 총무이사는 2024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2025년도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년 결산보고와 2025년 사업계획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임원 개선에서는 부회장에 원회 종친이 선임됐다. 사퇴한 홍수 고문의 후임으로는 승남 종친이 추대됐으며, 함께 사퇴한 태우 감사의 후임으로는 민회 종친이 선임되어 종친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 후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번 정기총회는 군사공파 종친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공파 총무이사 장묵」

2025년 부사공파 정기총회 성료



안동김씨 부사공파(회장 원호) 정기총회가 2025년 3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30-8(효제동) 일번지고기집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장 내외를 비롯하여 태옥 부평 내외, 현호 내외, 신도림 창호, 화성 재강, 철원 태형, 철원 재풍, 철원 규훈, 이문동 규선, 의정부 규용, 수원 민호, 철원 영수, 중국동 정묵, 부평 경호 등 총 17명의 종친이 참석하였다.

회의순서에 따라 참석자 소개 및 인사, 회장 인사말, 대종회 소식 전달, 흥성 및 철원중사 소식 전달, 중사 관련 논의로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대종회 소식 전달 순서에서는 2024년 안동 충렬공 시제 결과, 특히, 예천 물계서원의 향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주목을 끌었다.

기존에 안동김씨 중시조 충렬공 김방경, 척약재 김구용, 풍산김씨 허백당 김양진, 학사 김응조 등 네 분을 배향했던 물계서원에, 앞으로 안동 김씨 김구, 풍산 류씨 류성룡 등 두 분을 추가하여 여섯 분을 배향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서원 복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약 5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며, 대종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성금 모금이 진행 중이므로 종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진 '지도의 날' 지정 및 행사 관련 소식에서는 익원공(휘 사형) 선조께서 세계 최초로 당대 가장 넓은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 제작을 주도하신 업적을 강조하며, 지도 작성일인 1402년 음력 8월 초순경(양력 9월 초순경)을 기념하여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혼일강리도 복원 작업 성금 모금에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2024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사공파 종친회장이 안동김씨역사연구회의 요동백 전사지 답사에 참여한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요동백 충무공 묘소 진입로 안내판 설치 계획 재논의, 2025년 3월 26일에 실시하는 대종회 정기총회 참석 독려, 2025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하는 강진 선영 판서공 시제 참석 안내, 2025년 가을 철원 판교공 및 요동백 충무공 시제 참석 안내,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철원 포충사에서 열리는 요동백 충무공 춘계 제향 참석 요청이 있었다. 끝으로 2024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종친회는 불고기 정식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사공파종회 회장 원호」

철원포충사 춘계 제향 성료



2025년 3월 19일(음력 2월 20일 丁亥) 오전 11시, 철원 포충사(원장 전현일, 사무국장 겸 충무공김응하장군역사연구회장 김규훈)에서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향이 철원향교 장의 임병순의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제향은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초헌관 유광종 철원군 부군수, 아헌관 안창모 철원향교 원임전교, 종헌관 김태형 안동김씨대종회 이사, 묘사 이명규 철원향교 장의가 맡아 진행되었다. 집례는 임병순, 찬인은 조성진, 대축은 김태룡, 알자는 최장배 청년유도회장, 봉향은 김재경, 봉로는 김영수, 봉작은 박은숙 여성유도회장이 각각 맡아 분방기에 따라 예를 갖추 제례를 진행했다. 전작은 오미현, 사준은 심혜정이 담당했다.

제향에는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감, 이종민 철원문화원장, 김태우 철원군 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팀 직원 등 기관장들과 지역 유림들이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제향 후 인사말에 나선 김태형 안동김씨대종회 이사는 요동백 영의정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 강조하며 깊은 안타까

움을 표했다. 김 이사는 “원군에 김응하, 해군에 이순신, 육군에 김시민 세 분 장군 모두 영의정으로 추증되시고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영국의 해군사관학교 교과서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시민 장군 역시 충렬사와 김시민IC, 도로명 등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업적을 기리는 선양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벌을 호령했던 영웅이시며 명나라 황제로부터 요동백이라는 높은 작위를 받으신 김응하 장군에 대해서는 정작 철원 군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이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교육장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문화유산 관계자 여러분께서 김응하 장군 선양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제향은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그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장군의 넋을 기리며, 앞으로 김응하 장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양 노력을 다짐했다.

「대종회 이사 태형」



익원공파종회 제56회 정기총회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신 풍역 앞에 위치한 베뉴비안(백악관) 웨딩컨벤션에서 제56회 정기총 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임 회장인 재영 고문과 재남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9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총회는 호군공, 참의공, 부령공, 전첨공, 문정공, 효소공, 목사공 등 각 계파별 종인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문영공종회의 태헌 회장과 안렴사공파종회의 형남 회장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 가 되었다.

이임하는 영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회장직을 수행 하며 양평 묘소 정비와 진입 계단 단장 등 여러 성과를 이루었으나, 회관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문영공종회 태헌 회장과 안렴사공파 형남 회장의 축사가 진 행되었으며, 태연 사무국장의 종무 보고와 달수(在汕) 감사의 감사 보고가 있었다. 상정된 제1호 의안인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보 고의 건과 제2호 의안인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은 참석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제3호 의안인 제26대 익원공파종회 회장 선거에서는 부령공종회 의 용관(容觀)씨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문정공 계의 용호(容鎬)씨와 효소공계의 재철(在七)씨가 선출되었다. 이어 진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영수 회장의 이임사와 함께 꽃다발 및 감사장 증정식이 있었고, 신임 용관 회장의 종기 인수 및 명패 전달 이 이루어졌다. 용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파종회 발전을 위 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신임 용관 회장은 고창군청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을 거쳐 기획관 리실장(지방서기관)으로 정년 퇴임하였으며, 학교법인 중앙학원 이사와 한국JC(특) 회원 등을 역임하며 종사 활동에 힘써왔다.

한편, 익원공 재실 낙포재와 묘역 관리에 남다른 열정과 봉사 정 신을 보여준 홍식 씨에게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들은 뷔페식 오찬을 함께하며 파종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나누어 갖고 총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 성하고 더욱 활발한 종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익원공 사무국장 태연」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3.01.~2025.5.25)

- ◎ 회장회비
 - 200만원 : 【익】석한(광진)
- ◎ 부회장회비
 - 30만원 : 【전】재석(천안,관교(용인) 【제】덕응(공주)
【按】태성(김포),형남(강남),태운(세종)
【익】강식(하남),재교(안동) 【서】각영(경기광주)
- ◎ 이사회비
 - 20만원 : 【군】형묵(청주) 【전】인교(경기시흥),강우(김포),진회(대구)
【부】태형(철원) 【제】대응(천안),석응(천안)
【按】용원(세종)
【익】상묵(안동),종성(안동),용묵(청주),장회(강릉)
【서】규상(경기시흥),정수(안양)
- ◎ 통상회비
 - 10만원 : 【전】재욱(세종) 【대】재갑(함평),파종회
【제】태흥(서산),태이(천안) 【按】사관(관악)
 - 5만원 : 【군】재응(광진),태웅(일산),만회(의정부)
【문】민회(대구),수길(고양),영회(김포)
【제】용회(인천),상원(의왕),석진(서산)
【익】수돈(중구),용회(경남),남회(강릉)
【?】정길(부천)
 - 3만원 : 【군】호영(재,평창),재철(화곡),재향(강동)
【전】경회(영등포),화재(양평)

- 【도】우수(안양),춘식(종로),영복(의성)
- 【제】봉회(경남)
- 【按】태길(은평),진회(마포),태연(송파),덕균(재균,대전),
재윤(청주)
- 【익】운식(문경),정회(송파),봉수(인제),인식(광진),
완식(영주),상묵(안동),정회(천안), 창묵(선창,성동)
- 2만원 : 【제】춘묵(영등포) 【익】수석(의성)
- ◎ 평생회비
 - 30만원 : 【도】기흥(대구) 【익】재일(강릉), 재중(춘천), 태영(강동)
- ◎ 찬조금
 - 1백만원 : 【익】거석(종로)
 - 2십만원 : 【전】대교(은평), 태진(고양), 【익】재일(강릉)
 - 1십만원 : 【전】대교(고양)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3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

제학공파종회 2025년도 정기총회 성료



제학공종회는 지난 2025년 2월 22일 오전 10시, 영모재(천안시 동남구 가전1길 198-33)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4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만난 종인들과 안부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2024년도 결산 보고, 2025년도 예산 심의, 그리고 차기 회장 및 임원 선출이 상정되었다.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요 사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어진 차기 임원 선거에서는 현 회장인 규원 씨가 종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회장으로 연임 추대되었다.

감사에는 교관공 좌웅 씨와 생원공 태빈 씨가 선임되었다. 연임된 규원 회장은 교관공 석웅을 사무국장으로 지명하며 총회를 마무리 지었다. 총회 후 참석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우 불고기로 오찬을 함께하며 종인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제학공종회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확정하며 종친회의 발전과 종인들의 유대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제학공파종회 사무국장 석웅」

송천서원, 춘계 제향 성황리에 봉행



2025년 4월 17일(음력 3월 20일), 청주시 향토문화재 제118호인 송천서원에서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파조(휘 사림)을 기리는 춘계 제향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양지길 22-3에 자리한 송천서원은 김사림을 주벽으로 공신 14위의 위패를 모시고 후학을 양성했던 유서 깊은 서원이다. 이날 제향에는 안렴사공파 형남 회장, 문영공종회 태성 회장, 전 회장인 영만, 태현, 문영공종회 태철 총무이사, 봉진

재무이사를 비롯하여 멀리 여주에서 판교공 회장 태용, 오창 군자감정공회장 재기, 대종회 부회장 재필 등 3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초헌관은 신원식 청주향교 전교, 아헌관은 정상미 오창읍장, 종헌관은 김형남 파종회장이 맡아 정중하게 제례를 올렸다. 김한덕 청주향교 감사의 집례하에 축은 신동수 청주향교 장의, 봉향은 김범식, 봉로는 김용주, 사준은 송해성, 봉작은 김사부, 전작은 최봉익, 찬인은 김진우, 찬창은 조성규, 진설은 김윤희, 직일은 노현우 죽계서원 원장이 맡아 제향을 엄숙하게 진행하는 데 힘을 보탰다.

형남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선조님의 높고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화창한 봄날씨에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여 춘계 제향을 봉행하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때 이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이 넘는 제향이 진행되었으나, 참석한 문중 종인들은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는 경건한 자세로 제례에 임하며 송조화합의 정신을 되새겼다. 송천서원 춘계 제향은 안동김씨 문중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고 선조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안렴사공파 사무국장 용국」

안동김씨 부·울·경 종친회 45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4월 27일(일요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해암뷔페 8층에서 안동김씨 부산·울산·경남 종친회(회장, 熙仲) 제45차 정기총회가 종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종친회 배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희중(熙仲, 都) 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임원진의 노력에 힘입어 신규 종친 15명이

새롭게 합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내년 정기총회에는 올해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회 1부 순서에서는 선조님에 대한 묵념과 내빈 소개에 이어 희중 회장의 따뜻한 인사말이 있었다. 뒤이어 해수(海壽, 翼) 사무국장의 회무 및 회계 보고와 정회(晶會, 翼)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감사보고 후에는 2024년도 결산 보고, 새로운 집행부 인준, 그리고 2025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종친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든 안건이 통과되었다.

2부 순서에서는 만찬과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 및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어 종친들의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폐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2026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종친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부·울·경 사무국장 해수(海壽)」

고창 도암서원 학술대회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고창 도암서원(道巖書院)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성격과 건축학적 가치에 대한 학술대회가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고창 도암서원은 고창군 공음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1613년(광해5년)에 창건되었다. 익원공 낙포 김사형(翼元公 洛圃 金士衡, 1341~1407)의 6대손인 효자 영모당 김질(永慕堂 金質, 1496~1555)을 배향하고, 1847년에는 영모당의 증손으로 정유재란과 이괄의 난에 의병을 일으킨 은송당 김정철(隱松堂 金景哲, 1573~1640)과 병자호란시 선무원종공신에 오른 현무재 김익철(玄武齋 金益哲, 1575~1592)을 추향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고창군 향토문화유산인 도암서원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승격받고자 서원의 역사적 성격과 건축학적 의미를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진영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간사의 사회로, 주최인 호남지역학연구회 이선아 대표의 개회사 및 안동김씨 익원공파 통찬공중증 김경회(金京會) 회장의 환영사, 통찬공중증 김수원(金洙元) 총무이사의 내빈 소개를 마치고 전라도 무장현(茂長縣) 안동김씨의 '효제충신(孝悌忠信)'의 가풍과 도암서원의 위상에 대하여 이선아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1760년 (영조36)에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도암현우(道巖賢宇)'로 표기되어 있는데, 1793년(정조17)에 간행된 호남읍지와 1847

년(헌종13)의 호남읍지에 15명 원생을 원내(院內)에 나누어 배정한 기록이 있으며, 1796년(정조20) 고창 현감 이집기(李集基)가 '도암강당삼수상량문(道巖講堂三修上樑文)'을 지은 것으로 미루어 효자 김질(金質)을 배향한 사우에 강학(講學)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기에 미사액 서원에 원생을 나누어 배정되었다고 하며 이는 문중 사우가 아닌 서원으로서의 위상제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어서 도암서원의 건축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남해경 명예교수의 발표와 고창 만수당(晩睡堂)의 문화공간 의미와 위상 고찰에 대하여 순천대학교 김현진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만수당은 김영철(晩睡堂 金榮喆, 1842~1911)이 처음 건립한 당호로 이후 회천 김재중(晦泉 金在鍾, 1880~1938), 보정 김정회(普亭 金正會, 1903~1970), 경암 김병수(敬庵 金丙洙, 1920~1991), 연정 김경식(淵亭 金璟植, 1938~) 박사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 토론의 좌장으로 전남대학교 이향준 교수의 논고에 이은 세부 토론이 있었다. 도암서원의 위상과 보존과 관리방향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고창군청 김미란 팀장과 김숙희박사, 이용진 고창군 노인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도산서당과 만수당의 현 관리자인 김경식 박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 주었다. 익원공파중회에서는 청주의 윤회(允會) 부회장 부부와 인식(仁植), 태신(泰信) 부회장과 형식(亨植), 태철(泰喆)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학술대회를 주관한 고창 통찬공(諱 乙萬) 중증에서는 경회(京會) 회장과 용관(容觀) 중손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많은 중원분들이 성황을 이루어 고향의 정을 느끼고 도암서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승격 지정되기를 기원했다.

「문영공중회 총무이사 태철」

'한강의 기적' 숨은 주역, 故 김재관 박사 공적비 화성서 건립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선구자 기려

2025년 4월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남양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숨은 공로자인 故 김재관 박사의 공적비 건립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김재관 박사는 202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듬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그의 고향인 화성 지역의 김재남 회장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적비 건립이 추진되었다.

故 김재관 박사는 대한민국 1호 유치과학자로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크게 기여한 선구자이다. 그는 세계의 회의 속에서도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포항종합제철 설계와 건설에 헌신했으며,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설득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 표준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헌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힘썼다. 이러한 공로로 2001년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았고, 2023년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생전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국가 발전에 헌신했던 고인의 삶은 사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아들 원준(보명 원회)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는 “부친은 늘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했던 분”이라며 “이번 공적비 건립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구적인 과학자들을 위

한 기념비이며, 과학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과학기술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재영 대중회 고문, 재남 대중회 고문, 형남 부회장, 태용 부회장, 장묵, 봉진, 태철 대중회 이사 등 3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대한민국 산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지만, 타계할 때까지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았던 김재관 박사. 이제 우리는 그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누리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에 그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기억할 것이다. (대중회보 154호 기사 참조)



중중 봉안담(일명, 荷塘神殿) 건립기

— 안동김씨 서운관정공과 하당공종중회 —



서운관정공과 중중회(兼)하당공종중회 김각영(珪永) 이사장(사진)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81번지>에 중중 봉안담(일명, 하당신전)을 건립했다. 2020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25일 준공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차로 <경기도 의왕, 광주, 여주, 청양>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 300기 중 약 80기를 파묘-봉안했다. 금년에도 별도 신청을 받아 봉안할 예정이다.

봉안담 시설 규모는 석동 6동(양위실 5동, 1위실 1동)에 석실 규모는 총 504실(양위실 360실, 일위실 144실)이다. 이에 추진배경과 시설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봉안담 건립배경

봉안담 건립배경은 500년 전통을 이어온 유교적 매장문화가 근세에 화장문화로 바뀌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적 생활문화로 이에 순응하기 위해 1990년 후반부터 봉안담(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중중의 재원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던 중, 중중임야 일부가 국토개발에 편입되면서, 이에 따른 보상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봉안담 건립목적은; ①국가시책에 따라 장묘(葬墓)로 인한 국토 훼손을 줄이고, ②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묘소관리나 참배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③후대의 장사 및 장묘에 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함이다.

2. 봉안담 건립 후보지

봉안담 건립 후보지는 <경기도 의왕, 경기도 광주, 여주> 3개 지역을 검토했으나, 안양이 장손(長孫) 계열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파시조 서운관정공(諱 紱)를 비롯한 참판공(諱 陞), 감사공(諱 自行), 목사공(諱 叔演; 2024년 6월 청양에서 이곳으로 천묘), 유연재공(諱 希壽), 동고공(諱 魯)을 모시고 있어 이들 묘하(墓下)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모락산(해발 385.5m) 줄기에 연하여 위치한 곳으로 능선 중앙에 판교-구리고 속도도가 1988년에 개설되어 의왕인터체인지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산세가 비교적 급한 지역이다.

3. 봉안담 시설 계획

■봉안담 수요 예측: 우리 문중의 종원 수는 약 10,000명 정도로 <서울, 경기도 안양, 경기도 광주, 경기도 여주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선조의 묘소는 전체 300기 정도로 이 역시 이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로써 봉안담 시설의 수요판단은; ①기존 묘 중에 당상관-당하관 이상 벼슬한 선조 묘와 존치를 희망하는 묘를 제외하고 나머지 묘를 대상으로 했고, ②현존하신 종친을 포함하여 3대(손자)까지를 수요의 대상으로 했다. 이상의 계획에서 수요를 판단한 결과, 소요 석실 수는 약 500실【兩位室 360실, 1位室 144실】로 계획하고, 건립 동수는 지형과 지세를 고려하여 총 6동으로 결정했다. 양위실은【동당 72실-5동】으로, 1위실은【144실-1동】으로 계획했다.

석동(石棟) 배정은 성립(誠立)과 정립(正立)의 묘지 수와 종원 수를 고려하여 성립계열이 4동, 정립계열을 2동으로 배정했고, 각 동의 석실(石室) 배정은 가족 단위 배정과 향렬 배정을 검토하였으나 향렬식 배정으로 선대와 후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봉안담 시설 계획: 봉안담은 지하식과 지상식이 있다. 지상식은 주로 봉안당(奉安堂)의 건물형태이다. 장묘법에 따른 봉안담은 기존의

묘를 파묘하고, 그 자리에 옥외형 봉안담을 건설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존 묘를 파묘하고 지상식으로 계획했다. 봉안담 개발허가면적은 300㎡, 시설면적 100㎡로 결정했으나 개발보전금 약 3억(백만 원/㎡) 정도를 별도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개발허가면적을 134㎡ 줄여 변경허가를 득하여 봉안담을 시공했다. 봉안담의 좌향은 지형과 지세를 고려하여 오좌자향(午坐子向)에 일자식(一字式)으로 배열했다. 이 지역은 지세가 급해 많은 성토를 해야 했으므로 봉안담은 원지반을 굴착하여 설치하도록 했고, 제절은 4m 보강토옹벽을 쌓아 축조했다.

■봉안담 구조 및 규격: 봉안담의 구조는 석재의 판재조립형과 프레임(구주식)으로 할 수 있다. 철재 프레임(구주식)은 봉안시설의 골격을 철재 프레임(frame)으로 제작하고 마감재로 석재판재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영구성이 부족하고 시공성이 좋지 않아 석재판재의 격자형 조립식으로 결정했다. 석재는 전북 익산의 국산 황등석-화강석을 사용했다.

석실 규격은 양위실의 경우【500x540-350】, 일위실은【250x540-350】으로 계획했고, 석재 규격은 수직재-수평 간재는 두께 60mm로, 석동의 외벽 기둥은【폭 700x 두께 350】을, 중간 기둥은【폭 650x 두께 200】을 사용했고, 양 측벽의 측면과 전면에는 용각상(龍刻像)을 조각했다. 석문은 40T 오석으로 제작하여 석실번호를 각자(刻字)하고 명패를 부착토록 했다. 석물은 상석과 봉안담 건립기, 하당공종중회 소개비를 설치했다.

4. 봉안담 건설 추진과 파묘-봉안

■ 건설 추진 경과: 2020년 8월 착공 후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고, 개발보전금 취소청구 심판과 당초 기존 묘의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3차에 걸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약 4년 이상 걸렸다. 다행히도 중중 임원의 협력과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상호 이사가 기술적 문제와 공사품질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봉안담을 건설할 수 있었다. 건설의 주요 추진 일정은;

2020년 8월 14일 의왕시로부터 허가취득
2021년 4월 3일 착공 고유제 봉행
2022년 1월 26일 정지공사 착공
2022년 4월 22일 석실공사 착공
2023년 개발원상복원 공사 및 준공검사 필
2024년 석물 설치 및 파묘-봉안담 봉안 시행
2025년 조경 및 부대공사 시행 중이다.

■ 파묘-봉안담 봉안: 2023년 10월 25일 의왕시로부터 시설 준공 허가를 받고, 2024년 10월1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각 지역에 산재된 분묘 80기를 1차로 파묘-봉안담에 봉안했다. 봉안은 파묘시 수습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진토(塵土)되어 유골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진토 흙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했고, 실전묘(失傳墓)는 위패(位牌)로 봉안하도록 했다. 봉안담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봉안담 운영관리규정】과【봉안담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봉안담 건설착공은 전임 김덕영(德永-재임 기간 2019~2022) 이사장이 했고, 준공은 후임 김각영(珪永-재임 기간 2023~재임 중) 이사장이 하게 되었다. 봉안담의 설계-시공품질관리는 김상호(詳浩) 이사가 담당하고, 시공은 (주)한가묘(대표 황승하)가, 대관 인허가 업무는 (주)세영측량설계사무소(대표 00)가 수행했다. 봉안담 건설비는 총 13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하당신전(荷塘神殿)

- 봉안담 준공 기념 축시 -

荷塘公 15代孫 靑庵 金詳浩



靑庵 金詳浩

신전은 하늘을 낮추어 지은 이름이 아니요
천당이나 극락세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주(主)에게 땅의 예(禮)를 갖추 뿐이니라

천년세월에 목신 계림(鷄林)의 닭울음이 안동의 시호로 생을 잇는다
천이백십이년(1212) 충렬이 중시조로
천삼백구십사년(1394) 서운관정이 파시조로
천오백사십이년(1542) 하당이 계파시조로 혈맥을 이어오니
풍파에 서리가 앉고, 초로에 잔디가 삭으니, 그 빛 한이 없어라... [1]

여기저기 내린 찬 이슬에 새벽이 곡(哭)을 하고
한낮의 햇살도 수목에 가리어 바람에 휘날리니
삭아 든 흙 속의 온기는 온데간데없어라
묻힌 세월의 더께가 무겁게 짓누르니
세월에 효는 줄어들과, 오로지 사는 세상만의 나의 세상,
뿌리를 잃고 줄기만으로 사니... [2]

아직은 길옆에 누어 뜬 발걸음에 시름을 담아 풍파를 건디나
덧없는 세월의 탄식은 누가 지려나
이천이십년(2020) 종의(宗議)로 봉안담을 건설하니
이름하여 하당신전이라
새롭게 하늘을 보고 세상을 살필세라
깊은 한숨 잊으소서... [3]

하당신전은 빛의 길이요, 하늘을 섬김이요
우리의 효요, 우리의 뿌리인걸
나의 길이요, 나의 삶이라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누구도 훼손하지 말라... [4]

비록 세월에 이를 달리하려면 100척의 탑(塔)을 쌓고
1000번의 곡(哭)을 해야 할지니
선조의 넋과 혼을 잃지 말라
너희는 예(禮)로서 덕(德)을 쌓고
너희는 효(孝)로서 생(生)을 이어갈지니라... [5]

신이요 굽어살피소서!
신이요 문증을 번창하게 하시고
신이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으로 임하겠나이다
하당신전은 주(主)에게 땅의 예(禮)를 갖추 뿐이라!... [6]

「靑庵 金詳浩 (書)전 이사장 대중회 고문」



▲봉안담 준공후 전경(2024년 09월 29일 촬영 142834)

제433주기 임란공신 추모대제 봉행

-보령 호국사에서 엄숙히 거행-



2025년 5월 10일 오전 11시, 임란공신추모선양회(회장 황진수)는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호국사에서 433주기 임란공신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1990년 충남 보령에서 제향을 시작한 이래 매년 음력 4월 13일에 거행되는 추모대제는 올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동김씨 문중을 비

롯한 여러 문중의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상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렸다. 호국사에는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진주목사 충무공(忠武公) 김시민(金時敏) 장군과 충주 달래강에서 배수진을 치고 용맹하게 싸우다 탄금대에서 순절한 충민공(忠愍公) 김흠(金欽) 선조님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날 추모 제향에는 충민공의 후손인 재택 부부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임란공신추모선양회 관계자는 “매년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함께 모여 선조들의 뜻을 기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추모 대제를 통해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충민공종회 총무 태인」

충북 제천지역 역사문화 탐방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안사연)에서는 2025년 첫 탐방지를 충북 제천 지역 종친들 세거지로 정하여 지난 4월 28일(토)에 45인승 버스를 대절, 모두 30여명이 다녀왔다.

선조님의 사적 연구 및 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현장 탐방과 함께 15개 파조의 묘역과 유적 순례도 병행하여 내가 속한 문중사(門中史) 뿐만 아니라 안동 김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긍심 고취의 기회로 삼기로 하였는바 이번에는 안정공(휘 九德)의 여주 묘소 탐방도 겸하였다.

안정공파 파조(派祖) 김구덕(金九德) 묘소 ?~1428(세종10)

안정공(휘 九德)은 상락군(上洛君) 김묘(金昴)의 아들로 척약재 김구용(金九容)의 동생이며 조선 태종이 간택제도를 정하고 뽑은 간택후궁 명빈(明嬪) 김씨가 따님이시다. 또한 문종의 첫 세자빈 휘빈(徽嬪)이 손녀 되시는 분이다.

우리 문중 15개 파조 중 시호를 받으신 분은 안정공(휘 九德) 외에 문온공(휘 九容), 익원공(휘 士衡) 뿐이며 또한 단소가 아닌 실묘를 모신 분도 몇 분 안되는 현실에 비추어 여주군 가남읍 송림리 산67번지에 모셔진 안정공 묘소를 참배한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이날 여주 안정공 묘소에는 안정공파 홍기 회장님 등이 우리를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묘소가 위치한 지형의 설명과 현재 상황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해당지역은 타성(他姓) 소유의 땅인지라 매매하거나 사용동의를 받고자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다소 협소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더 확장하거나 부연해서 꾸미지 못하는 까닭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정공 묘소 앞에서 안사연 회원 일동〉

다음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충북 제천이니 이곳에도 우리 안동김씨 종인들의 세거지가 형성되었기에 찾아보기로 한것인바 제천시내 안동김씨 거주현황을 파별로 보면 충렬공 후손중 제학공파, 안렴사공파, 익원공파, 부사공파, 안정공파 등 5대 중종파(中宗派)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학공파 후손에는 부평공 후손과 충익공계 하담 시양(時讓) 후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제천으로 제일 먼저 자리를 잡게 된 후손은 제학공파 충익계 후손으로 하담의 배위되시는 정경부인 경주이씨(친정 부 이대수 : 임진왜란 시 제천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충주와 원주에서 왜적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줌, 제천 신월동 출신)가 제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담도 처가를 따라 이곳으로 이주를 하셔서 말년에는 제천에 우거하신듯 하며 당시 이주 년도를 추정해 보면 시양 충익공 하담의 생몰 년대가(1581 ~ 1643년)이기 때문에 말년인 1630년경 이후라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동김씨가 제천에 자리를 잡은 정작 년도는 적어도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쯤의 역사가 된다. (제학공파 김우용 제공 자료 인용)

옥천(玉泉) 김구호(金龜浩) 선생 묘소와 유허비 참배

우리는 먼저 제천시 고명동 산10번지 소재 김구호 선생 묘소를 찾았는데 이곳에는 제천 종중에서 묘역을 잘 조성하여 참관공 기원 할아버지를 비롯한 60여분의 선현을 모신 것은 물론 향후 이곳에 묻힐 종인들 자리까지 마련하여 잘 관리하고 있었고 ‘한울타리’라는 뜻으로 ‘한울묘역’이라고 이름지어 모시는 아름다운 향약(鄉約)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한울묘역 표석(왼쪽)과 김구호 선생 묘비(오른쪽)〉

제천시 송학면 소재 솔나무 정원 식당에서 뷔페식 한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현지 종인들까지 50여명이 식당 가득 화기애애한 한끼 식사를 함께 나누었으며 특히 김창규(안정공파) 제천시장이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으며 의미있는 문중행사에 찬사를 보내주었으며 우리는 시장의 앞길에 무운장구를 빌어주었다.

식사후에는 근처 시곡리 방아다리 마을에서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현장에 지난 2024년 10월 26일 제천시문화원과 시곡리 주민들이 김구호 선생의 항일의병활동과 학덕을을 기리기 위해 세운 유허비를 찾아 보았다.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소재 김구호 선생 유허비 앞에서 안사연 회원 일동〉

제천 의림지 16경 창시자 창랑 김봉지 선생

이어서 찾아간 의림지(義林池)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저수지로 아름다운 풍광을 정리한 16경이 유명하여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며 이곳을 기준하여 서쪽을 호서(湖西)라는 지명(충청도)이 생긴 곳이다.

이 의림지 16경을 정리하고 노래한 이는 김봉지(金鳳至)이다. 본관은 안동, 자는 성의. 증조할아버지는 처향인 하담 김시양이고 아버지는 의금부도사를 지낸 김추만(1629-1671)이다. 1775년(숙종1년) 생원과 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며 평양서윤을 거쳐 밀양도호부사를 역임했다. 말년에는 제천 의림지 서쪽 기슭에 진섭헌(振屢軒)이라는 별장을 지어서 지냈으며 의림지 16경을 노래하였다. 묘소는 봉양읍 삼거리 해좌 선영에 있다. 그는 관직에서 은퇴 후에 이곳 진섭헌에 살면서 의림지 16경을 노래하였으며 별호(別號)를 의림지 푸른 호수에 사는 노인이라는 의미로 창랑옹(滄浪翁)이라 했다.

그는 이곳 일대를 대송정, 홍류동, 호원정, 자연대, 등의 승경과 어울

리는 한 폭의 진경산수로 묘사하여 지상낙원으로 칭송했으며 당대의 문인 이서우와 함께 의림지 16경을 노래하였는바 시의 주제와 대상은 그가 사랑한 진섭현, 우륵당, 연자암, 대송정, 호월정, 대제(大堤), 선지(銑池), 폭포, 용담, 홍류동, 자연대(紫烟臺), 류만(柳灣), 순주(蓴洲), 내교(內郊), 외교(外郊) 등 모산의 의림지 16곳의 승경이었다.

그러나 그가 세웠다는 후선각(候仙閣)은 전하지 않고 용추폭포 좌측에 후선각터라는 표지판이 있을뿐이며 조선후기 화가 김윤겸(新安동)의 候仙閣圖가 전하고 있어 조금 더 상세한 안내표지판을 세우거나 한발 더 나아가 후선각(候仙閣)을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제천 의병활동과 처사 김구호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왜변이 벌어지고 단발령이 시행되자 의암 유인석을 의병장으로 을미의병운동이 일어났을 때 처사의 신분인 옥천 김구호(金龜浩) 선조님께서도 의병진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는 제천군지와 대중회보등에도 실리었다. 뿐만아니라 안동김문종중에서 구한말 의병에 참여한 이가 옥천 김구호 외에도 복암(復菴) 김화식(金華植)과 운산(云山) 김상중(金象鍾) 등이 더 있었으며 복암은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애국장을 수여 받았다.

제천 봉양읍에는 자양영당(紫陽影堂)이 있는데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인 유중교(柳重敎)가 1889년(고종 26)에 창주정사(滄洲精舍)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던곳이었으며 또 1895년에는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이 8도유림을 모아 창의(倡義)의 비밀회의를 하던 곳인데, 1906년 유림에서 뒤편에 자양영당을 창건하고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 · 이항로(李恒老) · 유중교 · 유인석 등의 영정을 봉안하고 봄과 가을로 제향하고 있어 다함께 둘러보았다.

자양영당 옆에는 유중교 선생 거택과 제천의병전시관이 있어 빛나는 의병활동을 잘 정리해놓았는데 이곳에 김구호, 복암 김화식 선생등의 의병활동 기록이 추록(追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후손들이 힘써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루 해가 짧을만큼 여주를 거쳐 제천으로 넘어가 의림지 일대와 자양영당까지 답사를 하고 선조들 활약상을 듣고 보고 나니 안사연의 활동 목표와 탐방의 방향이 올바른 것은 물론 앞으로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한다고 본다. 이번 탐방에 점심식사를 제공하시고 자세한 안내와 환대를 베풀어주신 제천 제학공과 한울회 중인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내주신 태성 문영공회장님과 안사연회원들이 딸기 한박스씩 들고 귀가하게끔 선물하신 영환 판서공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양영당 옆 제천의병전시관 기념탑 앞에서 안사연 회원 일동〉

「안사연 학술담당 신묵」

(주) 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종합문화재수리업 01-16-0042호

경정대(경상북도 경향청 내)

대표 고담
김진식(익원공파)

문화재수리 기술자(보수1862호)
경상북도 명장 (건축목공시공)
대한민국 신지식인(16-035)
문화재수리기능자(대목수4459호)

경북 영주시 영주로 250 (3F)
Tel. (054)636-1239
Mobile. 010-3507-1239
E-mail : 0103507kim@hanmail.net

인물 동정

(按)김태성 문영공종회 회장 취임



문영공종회(文英公宗會)는 2025년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되는 김태헌(金泰憲) 회장 후임에 안렴사공파 전 수도권회장을 역임한 김태성(金泰聖)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김 회장은 안렴사(휘 士廉)공의 21대손, 해주 목사(휘 公望)의 15대손으로 1948년 경기도 김포에서 두회(斗會)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철도공무원을 역임한 후, 동부건설 해외사업부에서 다년간 근무했다. 이후 동양이엔씨에서 전기감리사로 6년간을 근무하고 정년 퇴임 후에는 안렴사공파 김포종친회장, 수도권 회장, 문영공종회 이사, 대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안동김씨 역사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 IT개발 · 경영컨설팅 회사인 (주)로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계〉

충렬공 방경-순-영후-천-안렴사공 사림-약-우주-환-종손-성-공망-서-용여-각-윤범-강-성욱-정-득기-집-세현-호은-상묵-재봉-두회-태성

익원공파종회 김용관 회장 취임



익원공파종회(翼元公派宗會)는 지난 3월24일 정기총회에서 영수(榮秀) 회장 후임으로 좌랑공(諱 貴德) 후손인 용관(容觀, 1949生) 부회장을 파종회장에 선임하였다.

김 회장은 충렬공(諱 方慶)의 27대손으로 고창에서 태어나 고창군청 지방행정 사무관(공음면장, 고창읍장, 환경보호과장, 의회사무과장, 재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고 지방서기관인 기획관리실장으로 대통령상과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정년 퇴임한 후에는 학교법인 중앙학원 이사, 한국JC(특)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좌랑공 고창종친회 부회장과 대중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가계〉

충렬공 방경-순-영후-천-익원공 사형-승-종한-좌랑공 귀덕-을만-복중-영모당 질-사육-상-은송당 경철-준-상전-성희-중행-구서-창백-양곤-이효-재한-병식-만회-수현-창식-용관

위기 학교가 명문 학교로 … 보인고의 놀라운 변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가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 3학년 학생 360명 중 1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어·수학 자체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시험과 흡사하게 진행되어 학생들의 실전 감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사들은 수능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항 수, 시험 시간, 심지어 종소리까지 동일하게 구현하며, 이는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오양욱 보인고 교감은 “마치 양궁 국가대표가 올림픽을 앞두고 실제 경기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과 같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 당일 긴장감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주말 학원비 절감 효과도 있어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상업고등학교였던 보인고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괄목할 만한 대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는 2021학년도 9명에서 2025학년도 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국 상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보인고의 성공적인 변신을 ‘신흥 명문고 탄생’으로 평가하며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04년부터 학교를 이끌고 있는 김석한 이

사장의 경영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2000년대 학교 재정 위기 속에서 학교 운영을 맡게 된 김 이사장은 ‘시대가 변했는데 상고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07년 일반고 전환을 단행하고, 우수한 교사진 확보를 위해 9단계에 달하는 엄격한 채용 과정을 도입했다. 또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관 신축 및 본관 건물 수리 등에 총 32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결정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보인고는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며 명문고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학교 경영을 기업 경영과 마찬가지로 ‘고객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학교의 고객은 학생과 학부모이며,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대입 성과를 창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은 방과 후 야간 자율 학습 운영 방식에도 반영되어, 단순 자습이 아닌 학생들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 자료와 실험 기자재를 제공하며, 전체 학생의 80%가 자발적으로 야간 학습에 참여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보인고는 학업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성 교육을 강조하여 신입생에게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반 대항 축구 리그를 운영하며, 점심 식사 후 30분간의 ‘오침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3학년과 신입생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전학률을 현저히 낮추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인고의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과 학생 중심의 경영 철학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김민기 기자」

페예노르트, 보인고 유망주 배승균 영입…3년 계약 체결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시 페예노르트가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에 이어 보인고 출신 유망주 배승균을 영입했다.

페예노르트는 8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배승균은 2025년 7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페예노르트 선수가 된다. 그는 2028년 여름까지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구단 측은 네덜란드에서 직접 한국으로 건너와 보인고에서 입단식을 진행했다.

네덜란드 무대에 입성하게 된 배승균은 구단을 통해 “모든 게 꿈 같다. 페예노르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페예노르트는 이번 연으로 보인고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페예노르트가 1908년에 창단, 보인고가 1908년에 개교한 걸 팬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2007년생 17세 유망주 배승균은 군포중을 거쳐 보인고에서 성장한 미드필더다. 그는 2003년 16세 이하(U-16) 연령별 대표팀 소집 훈련에 발탁되면서 처음 주목을 받았다.

지난 주말 배승균이 페예노르트로 향한다는 소식이 네덜란드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결국 페예노르트는 배승균 영입에 성공하면서 황인범에 이어 또 다른 한국 선수를 품게 됐다.

「뉴시스」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중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제출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